

# 대중가요 리메이크에 관한 연구 - ‘거위의 꿈’을 중심으로 -

신민경,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뮤직트레이너학과

e-mail: [hialiceshin@naver.com](mailto:hialiceshin@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 A Study on the Remake of Popular Songs -Focusing on the song ‘Gooses’s Dream’-

Min-Kyung Shin, Tea-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Music Trainer Chungwoon University

### 요약

현대 대중음악의 트렌드는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하루에도 여러 장르들의 새로운 곡들이 발매되고 있다. 우리는 많은 신곡들 중에 리메이크 곡을 접할 수 있다. 리메이크곡은 원곡의 의도를 해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수정해서 젊은 대중들로 하여금 인기를 끈다. 리메이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기성세대에게는 친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신선함으로 다가온다. 본 연구를 통해 리메이크가 갖는 의의와 시대별 상황, 배경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신·구의 융합이 만들어내는 음악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본 논문에서는 카니발의 거위의 꿈, 오리지널 버전과 인순이 버전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본다. 리메이크는 시대별 감성을 느끼게 해 주며, 세대 간의 문화적 교류 즉, 세대 공감을 일으키며, 빠르게 발전하는 미디어를 통해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지 않도록 소통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좋아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창작을 요구하는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한계점이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형태의 리메이크는 단순히 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이 되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 1. 서론

오늘날에 음원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하루에도 우리가 들은 본 곡을 포함하여 신곡들이 출시된다. 이 중에는 학창시절 혹은 그 전부터 자리를 잡고있던 음악들도 출시되는 경우가 있다. 흔히 우리가 들으면 익숙하거나 알던 곡, 이것을 리메이크 곡이라고 한다. 리메이크란 영문의 ‘remake’로 뜻은 다시 세우다, 다시 만들다, 수정하다, 고치다 등의 뜻으로 이미 발표된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지만 대체로 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다. 이런 점에서 원작의 이름은 빌리지만 새로운 장르의 작품을 창조해 내는 패러디와 구분되며, 또 원작을 빌렸다는 사실을 밝힌다는 점에서 표절과는 다르다. 리메이크 곡의 원곡은 옛 유행곡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곡, 외국곡 등 종류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리메이크곡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최초의 시점을 분해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현대사회에 빠르게 변하는 가요계 흐름에서 유독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명곡이 가진 힘이다. 장르를 초월한 국민 가요는 시대를 넘어 세대의 벽도 넘는다. 명곡의 저력, 지금도

리메이크의 바람이 가요계를 뒤흔들고 있다[1].

리메이크 음악은 그 시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에게 익숙한 목소리와 세련된 편곡을 통해 친근감 있게 다가와 몰입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리메이크 음악은 향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세대 간 장벽을 허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화성과 수용성을 통하여 분극화·파편화된 미디어 이용 현상으로 인한 세대 갈등을 해결할 사회적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회적 의의가 있으며 문화 산업적 측면에서도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선순환의 사례를 만들기 때문에 콘텐츠로서의 가능성과 의의가 인정된다[2].

## 2. 본론

### 2.1. 거위의 꿈 - 카니발(Carnival)

<거위의 꿈>은 1997년 5월 4일날에 발매된 카니발(Carnival)의 맨 마지막 수록곡이다. 패닉의 이적과 전람회의 김동률이 프로젝트 형식으로 만든 그룹 카니

받은 표현해 내고 싶은 마음을 담아낸 가사와 담담한 목소리가 더해진 그들의 멋진 표현력과 더불어 노래를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가사를 통해 노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준다.

### 2.1.1. 곡 해설

카니발 앨범의 마지막 곡으로 수록이 되어있는 ‘거위의 꿈’은 새 이면서도 하늘을 날지 못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위, 어찌보면 작고 처량해 보일수도 있는 그 거위가 체념, 고난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하늘을 날고 싶다는, 거위도 높이 날 수 있다는 것에 비유해 꿈을 꺾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소년의 다짐을 진한 발라드로 노래하고 있다. 앨범 자체로 평가받기보다는 그저 두 인기 그룹의 멤버들이 만난 가요 발라드 음악으로만 치부되었는데 효과적인 현악 세션과 세련되고 풍부한 편곡은 본격 한국판 챔버팝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3].

### 2.1.2. 곡 분석 - 원곡버전

1990년대에는 대한민국 가요계의 르네상스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위의 꿈이 발매된 1997년도에는 1세대 아이돌의 인기로 인해 댄스가요가 인기가 많았으며, K-POP IDOL 문화의 시발점이 된다. 다양한 전자음악(MIDI음악)사운드를 사용해서 귀를 사로잡았던 댄스음악과는 다르게 ‘거위의 꿈’은 리얼 악기들의 사운드로 Intro에는 피아노 연주와 동시에 노래가 시작되어서 온전히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그래서 그들이 표현하고자하는 가사가 잘 들린다.

[그림1] 거위의 꿈 - 카니발(Carnival) Intro

2절 Verse(벌스) 들어가기 전에는 브라스와 피아노 멜로디의 선율에 집중하게 하며 드럼, 베이스, 스트링이 더 해져 풍부한 사운드로 귀를 사로잡았다. 잔잔하

게 잘 어울어지는 악기들의 하모니를 가로지르는 듯한 확찬 사운드 위에 두 사람의 개성 만점의 보컬, 메인 멜로디에서 3도 아래로 화음을 쌓아 더욱 감미로운 하모니가 멋지게 어우러지면서 집중하게 한다.

[그림2] 거위의 꿈 - 카니발(Carnival) Outro

고조가 된 Bridge (브릿지)부분에서는 보컬의 뒷편으로 더 큰 전율을 느끼게 연주하는 스트링악기들이 패드로 쌓고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브라스를 함께 사용하여 곡의 절정의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Outro에서는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노래가 끝나고서도 마지막에 브라스로 한번 더 메인멜로디를 연주하면서 Fade Out으로 듣는 이로하여금 노래가 끝나고도 마음에 와 닿게 여운이 남도록 하였다.

## 2.2. 거위의 꿈 - 인순이

인순이의 본명은 김인순. 1978년에 걸그룹 희자매의 멤버로 데뷔하였다. 희자매는 디스코풍의 빠른 템포에 울동을 더한 음악들을 주로 했다. 1978년 7월 1일 희자매는 첫 정규 앨범을 발매했었고, 타이틀곡<실버들>로 TBC가요차트 7주 1위를 하며 인기를 얻었다. 1980년에는 인순이는 1집<인연>으로 솔로 데뷔를 하였고 1983년 디스코풍의 <밤이면 밤마다>가 히트를 쳐서 1984년 KBS 7대 가수상을 수상하며 인기가수 대열에 올랐다[4]. 이후 박진영과의 작업한 ‘또(1996)’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당시의 한국 나이로 마흔에 ‘트로트’가 아닌 다른 장르에 도전하는 정신이 비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이후 2004년 조PD의 히트곡 ‘친구여’에 피쳐링으로 참여했으며 그 결과 유일하게 차트제를 운영한 음악캠프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고 지금도 친구여 노래하면 그녀의 노래라고 착각할 정도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 세대들까지 큰 인상을 남겨주었다. 2006년 원곡이었던 Jean Roch 의 Can You Feel It을 리메이크한 ‘열정’,

2007년에는 당시 10년 전에 발표되었던 카니발의 ‘거위의 꿈’을 리메이크 하면서 곡들이 연달아 히트하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5].

### 2.2.1. 곡 분석

카니발의 거위의 꿈의 시작은 Intro가 없이 피아노 연주와 동시에 노래를 바로 시작했다면, 인순이의 거위의 꿈은 피아노 반주로 시작하여 Intro로 시작부터 인순이의 소울풀한 보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원곡에서 이적과 김동률의 보컬스타일과는 다른스타일을 구사하고 있다. 이적과 김동률은 가사를 똑바로 읽듯이 정박으로 부르고 있다면, 인순이는 첫 가사부터 호흡을 신어 공기반 소리반으로 박자를 정박으로만 부르지는 않았고, 한 소절의 마무리를 페이드아웃으로 음의 강약을 잘 표현하였다.



[그림3] 거위의 꿈 - 인순이 Intro

Pre - Chorus부터는 스트링을 패드로 깔아주는 연주로 인해 사운드의 풍성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어서 인텔루드에 등장하는 리드사운드의 연주로 곡의 감성을 더 짙게 해 주었고, Brige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듯이 가창하는 부분 그리고 다시 한 번 패드의 역할을 해주는 스트링의 전체적인 화성의 풍부함으로 곡의 분위기를 절정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4] 거위의 꿈 - 인순이 Outro

Outro에서는 코러스가 후렴의 ‘난 꿈이 있어요 그 꿈

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를 메인멜로디를 메창을 하면서 인순이의 소울풀한 보이스트론과 더해져 고조된 분위기에서 서정적인 멜리즈마라인을 하면서 페이드아웃으로 노래를 마친다. 인순이의 거위의 꿈은 원곡보다 더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연상시키는 곡으로 꿈이라는 키워드와 더불어 세대공감을 극대화시켰다.

### 3. 결론

본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곡에 주로 사용되는 악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풍부한 화성의 연주로 마치 오케스트라를 연상시키게 한다. 현대 사회에 꿈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재탄생되었다. 원래 발표되었던 작품에서 원작을 충실하게 따르거나 의도를 해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수정해서 젊은 대중들로 하여금 인기를 끈다. 그리고 재해석한 가수의 보컬스타일에 따라서 같은 곡이지만, 다른 느낌으로도 표현이 된다.

리메이크는 원래의 곡을 접했던 이들에게는 ‘향수’라는 정서로 다가갈 수 있고, 세대 간의 문화적 교류 즉, 세대 공감을 일으키며, 아주 빠르게 발전하는 미디어를 통해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지 않도록 소통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리메이크 음원들이 등장함에 따라 이제 리메이크는 단순히 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창작곡보다는 접근성이 좋아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예술적인 측면에서 창작영역을 벗어났다는 시선에서는 긍정적일 수는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대중음악 리메이크를 통해서 신·구의 융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음악문화를 기다리며 본 연구논문을 통해 리메이크 연구하고자 하는 많은 실용음악 지망생들, 교육연구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의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1] 정소진, 대중음악 중심으로 한 리메이크 현상분석, 동의대학교 2021
- [2] 박선민(대중가요 리메이크와 복고)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5
- [3] 음원사이트 (멜론) ‘프로젝트 그룹 카니발’ 앨범 정보.
- [4] 위키백과 ‘인순이’ 인물정보
- [5] 나무위키 ‘인순이’ 인물정보